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라질의 대사로서, 저희의 경제적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박지은입니다.

본국은 현재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꽤나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왔던 일로, 식민지 역사를 원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 우리들의 선조는 강제로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하여 노동해야만 했습니다. 1888년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자유를 되찾게 되었지만, 오직 소수만이 토지, 자본, 그리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경제 양극화가 전개되었습니다.

백여년이 지난 지금,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유층들은 돈이 돈을 낳는다고, 기존 자산들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겨나지만, 서민은 열심히 노력하며 일해도 낮은 임금을 받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국은 2003년 룰라 정부때 지원금 지급을 통해 극빈층 가정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자 ‘불사 패밀리아’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의 재분배 정책으로 수백만 명이 극빈 상태에서 벗어나고 아동 교육률과 영양이 개선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은 없었기에,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 격차는 지속되었고 불평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원금보다는 소득 구조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1. 비공식적인 노동자들을 공식 고용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소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2.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술을 필요로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3. 가난한 사람이 아닌,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금구조를 개정합니다.

본국의 정책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경제 양극화 변화에 모범 사례가 되어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인 변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들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대표 여러분들의 재정적 지원과, 제도 설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면 전세계의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질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